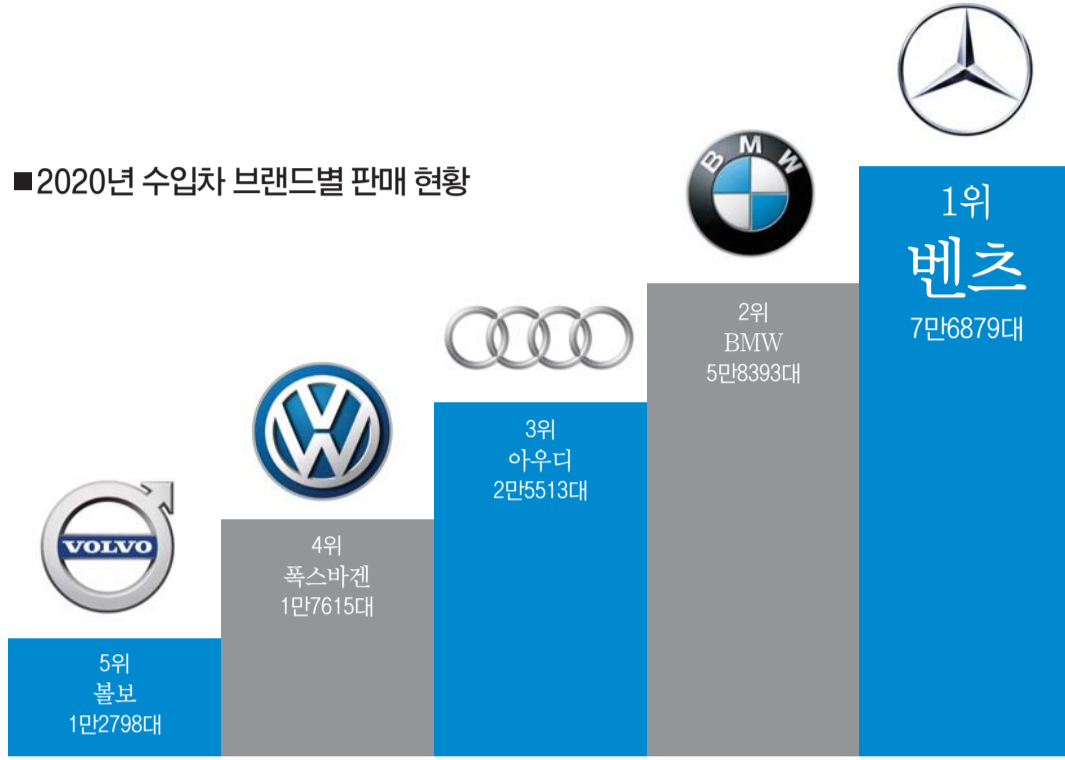


수입차 쾌속질주 ... 벤츠 선두 질주

지난해 국내 판매 27만대 돌파 '역대 최대' ...전년비 12.3% 증가
광주 5444대·전남 5176대 등록...신차 출시·개소세 인하 효과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자동차가 '쾌속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입차의 국내 판매가 27만대를 돌파면서 전년 대비 10%이상 성장한 것은 물론,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갱신했다. 인기 브랜드들이 잇달아 신차를 출시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겹친 게 수입차 판매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차 중에서도 메르세데스-벤츠가 전년에 이어 판매 1위를 세우는 등 '왕좌'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그 중에서도 작년 '베스트셀링' 모델은 벤츠 E250으로, 벤츠는 총 3개의 모델이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우선 지난해 전체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는 총 27만4859대로, 전년 24만4780대에 비해 12.3%(3만79대)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매달 평균 2만2905대의 수입차가 팔린 셈이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판매만 놓고 보면 총 3만1419대가 신규로 등록, 전년(2만7436대) 보다 14.5%나 증가했고, 전년 동월(3만72대)에 비해서는 4.5%가 늘었다.

하반기 신규 모델 출시에 맞춰 수입차 업계가 연말을 맞아 각종 프로모션을 내거는 등 적극적인 판매 확대에 나섰던 게 한몫 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브랜드별로 보면 메르세데스-벤츠가 7만6879대가 팔리면서 전년에 이어 1위를 지킨 것은 물론, 전체 수입차 시장의 점유율 31.92%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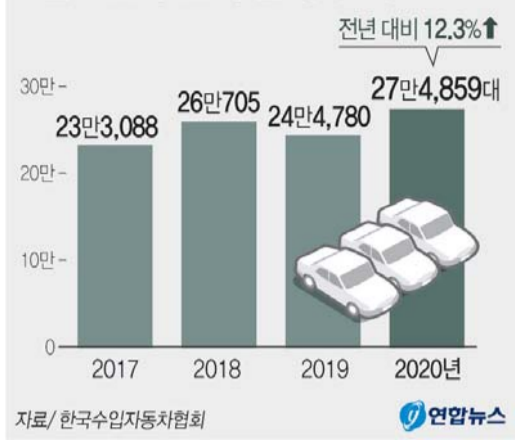
이어 2위는 지난해 10월 뉴 5시리즈를 출시했던 BMW(5만8393대)가 차지했고, 3위는 아우디(2만5513대), 4위 폭스바겐(1만7615대), 5위 볼보(1만2798대) 등 순이었다.

지난해 베스트셀링 모델은 역시 메르세데스-벤츠의 E250으로 작년 한 해 총 1만321대가 판매되면서 수입차 모델 중 유일하게 1만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8631대)으로, 3위는 메르세데스-벤츠 E300 4MATIC(7835대), 4위 BMW 520(6948대), 5위 포드 익스플로러 2.3(5998대) 등 순이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작년 10월 출시한 E클래스의 10세대 부분변경 모델이 인기를 끌며 총 3개 모델이 베스트셀링 카 10위 안에 포함됐다. 1위인 E250과 3위인 E300 4MATIC에 이어 A220 세단이 4014대 팔리면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도별 수입차 판매 추이



한편 지역별 수입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는 작년 총 5444대 등록돼 전년 5009대보다 8.7% 증가했고, 전남에서는 5176대가 신규로 등록해 전년 4846대보다 6.8% 수입차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수입 승용차 시장은 다양한 신차효과와 물량확보 및 개별 소비세인하 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더!
똑똑해졌다
편리해졌다

기아차 2021 모하비 출시

기아자동차는 11일 상품성을 강화한 프리미엄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021모하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1 모하비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및 편의 사양을 새롭게 추가하고 조작계, 승차감 등 상품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 최초로 2021 모하비에는 전측방 레이더를 신규 적용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 II'가 탑재됐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뿐 아니라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조작하면 스티어링 휠 제어로 차로 변경을 도와주거나, 20km/h 이하의 정체 상황에서도 끼어 들어오는 차량에 대응하는 등 기존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편리한 주행을 돕는다.

또 기존 모델보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강화됐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안전한 주행을 위해 속도를 조절해주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진출입로, 평소 운전자 주행 성향을 반영해 스스로 주행하는 운전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ML)이 탑재됐다. 이밖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으로 교차 차량·추월시 대항차·측방 접근차 등이 적용됐다.

신형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도 기아차 최초로 적용돼 기존 8.5인치에서 10인치로 크기가 확대됐고, 도로 곡률과 차로 변경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더해 편의성도 향상됐다.

후석 승객 알람(ROA)과 스마트폰 무선충전을 모든 트림에 기본 탑재, 주력 트림인 마스터즈에 운전자 체형에 맞춰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 등의 위치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스마트 자제제어 시스템도 기아차 SUV 최초로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최근 차박 트렌드를 고려한 사양으로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트레일러 히치를 커스터마이징 품목에 새롭게 추가했다.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플래티넘 4869만원 ▲마스터즈 5286만원 ▲그라비티 5694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1세대 그랜저



6세대 그랜저

'성공의 상징'서 '국민차'로

현대 그랜저 35년간 200만573대 판매

'성공의 대명사'로 불렸던 그랜저가 국내 시장 누적 판매 200만대를 넘어선 명실상부한 '국민차'로 자리매김했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그랜저는 1986년 첫 모델 출시 이후 작년까지 35년간 6세대에 걸쳐 국내 시장에서 총 200만573대가 판매됐다.

출시 초기에는 국산 최고급 자동차를 대표하는 모델로 '성공의 대명사'로 불리며 판매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으나 이후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판매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세대별 판매량은 1세대(1986~1992년) 9만2571대, 2세대 뉴 그랜저(1992~1999년) 16만4927대, 3세대 그랜저XG(1998~2005년) 31만1251대, 4세대 그랜저TG(2005~2011년) 40만6798대, 5세대 그랜저HG(2011~2017년) 51만5142대, 6세대 그랜저IG(2016년~현재) 50만9884대다.

이중 200만대 달성에 큰 역할을 한 모델은 5세대와 6세대 모델이다. 5세대 모델부터 판매가 크게 확대되며 2011년 당시 대형 세단으로는 처음으로 연간 판매 10만대를 넘어섰다.

2016년 말 출시된 2017년부터 판매가 본격화된 6세대 모델은 꾸준히 연간 판매 10만대를 달성하며 국내 베스트셀링카로 자리 잡았다.

그랜저는 작년 역대 최대 기록인 14만5463대가 팔리나가며 4년 연속 국내 판매 1위와 연간 판매 10만대 기록을 달성했다.

또 6세대 그랜저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입지도 강화했다. 6세대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출시 이후 작년까지 4년간 총 11만1249대가 팔렸다. 특히 작년에는 전체 그랜저 판매량의 26.8%에 달하는 3만8989대가 판매돼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중 판매 1위를 기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비대면 차량 정비 받으세요

기아차 'K딜리버리' 서비스

기아자동차가 이달부터 전국에서 비대면 차량 정비 서비스 'K딜리버리' (Delivery)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K딜리버리는 기아차가 기존에 운영 중이던 '도어 투 도어' (Door to door)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다.

도어 투 도어는 담당 직원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받아 정비 후 다시 인도하는 서비스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의 제한이 있었다.

K딜리버리는 전문 탁송 업체와 제휴를 통해 도서산간 및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고객은 서비스 신청 후 30분, 도서산간 지역은 1시간 이내로 전문 기사에게 차량을 인도할 수 있으며 기사 배송 및 차량 이동 현황을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기아차는 직영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K딜리버리 운영시간을 확대해 센터 운영시간(08시 30분~17시 30분) 외에도 고객이 차량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내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기아차 통합 모바일 고객 앱 'KIA VIK'이나 기아차 멤버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아차는 서비스 개편 기념으로 오는 2월까지 K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편의 가격으로 왕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1+1 이벤트를 실시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